

## 위선의 실체와 지상 교회의 부패(5막)

성경말씀: 눅13:10-21

예수님의 공생애 마지막 6개월(눅9:51), 모든 도시를 다니며 최종 사역, 사역 요약: 위선 척결  
원인: 탐욕, 사람의 두려움 등, 주님은 멀리 내다보라고 하신다(눅12:4-5). 그 멀리의 핵심은 주님의 재림, 주님이 재림하셔야 인간의 모든 고통이 끝난다. 창조물의 신음, 성도들의 고난이 끝난다. 몸의 구속,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분별하며 조용히 할 일 하면서 기다린다. 개인: 온전한 개인 생활, 가정생활, 교회 생활, 사회생활, 교회: 말씀 선포, 교육, 훈련, 선교와 구제  
이 말씀 뒤에 주님이 오신 목적(눅12:49-53): 예수님이 들어가면 분열. 참과 거짓, 빛과 어둠  
때 구분(눅12:54-59): 위선자들, 날씨는 분별하면서 시대의 징조는 구분 못함  
회개해야 산다(13:1-10),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임, 그들이 더 큰 죄인이 아니다. 너희도 회개해야 한다. 망대로 죽은 18명, 그들이 더 큰 죄인이 아니다. 너희도 회개해야 한다. 내 문제다. 위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6-10): 삼년 동안 기다렸지만 한 해만 더 기다린다. 위선 타개 촉구  
이렇게 위선과 탐욕, 근시안적인 시각, 회개 무시, 주님의 인내 등을 이야기해도 여전히 불통  
오늘 본문(눅13:11-17) 다시 한 번 위선의 실체와 하나님의 백성의 부패를 보여 주심

### 사건 배경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심(10), 이미 안식일 문제는 여러 번 언급(눅6:1-5, 6-11 등)  
불쌍한 여인(11): 18년 동안 마귀에게 사로잡힘, 몸이 굽고 휘어져서 몸을 전혀 들지 못함  
유전적 요인이 아니라 살다가 마귀의 공격으로 18년 동안 몸이 굽어 땅만 보고 살게 됨  
여인의 태도: 18년 동안 고통 속에서도 기도하고 간구하였으나 응답이 없음. 그래도 여전히 화를 내지 않고 주님께 예배하려고 기도드리려고 나옴, 신실함, 18(6+6+6)

이 여인을 생각할 때 내 자신이 부끄럽다. “과연 18년 동안 병중에서도 신실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치유(12): 사람들의 필요를 간파하심, 네가 나왔다. 병약함에서 풀려났다. 해방  
이분이 누구신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요인: 사탄, 죄와 불법(시38:6), 고통(시42:5), 고난(시44:25)  
예수님만이 완벽하게 고칠 수 있다. 말씀하시고 손을 대자 병이 나옴, 병약함에서 완전히 풀려났다(12).

여인의 즉각적인 감사(13): 하나님께 영광, 거기 모인 사람들은 잊을 수 없는 사건  
예수님의 왕국 복음 파위(눅4:18-19), 기적, 표적, 마귀 내쫓음, 병자 고침, 눈먼 자, 죽은 자  
회당 치리자의 반응: 여인에 대한 동정심 없음, 예수님의 통치 거부, 영광과 감사는 전혀 없다.

화를 내며 사람들에게 말함(14). “6일 동안 일 할 날이 있으니 그 날 고쳐라. 안식일에는 안 된다.”  
이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날에 행해도 아무 문제없다.

여인은 고침을 받으러 가지 않았다(18년 동안 못 고침). 예수님도 가르치려 가셨다(1).

그런데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곤궁에 빠진 여인을 보자 하나님의 긍휼이 그 여인을 고침  
원래 누가 이 여인을 고쳐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가? 양들을 말아 말씀을 가르치는 회당의 치리자  
자기는 못하는데 남이 하니 다른 이유를 들어 화를 냄, “우리는 어떤가?”

여인을 묶은 줄은 그녀의 몸에만 영향을 미침. 이 사람을 묶은 줄은 그의 영과 혼에 영향을 줌.

그 결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지 못함(눅12:56-57), “우리는 어떤가?”

전통과 자기 생각에 매여 하나님을 대적함: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이것이 위선

내가 하는 일이 진정 하나님을 위하는 것인가? 교회를 위하는 것인가?

말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나를 위한 것은 아닌가? 혹은 쓸데없는 전통을 지키려는 것인가?

위선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눅12:2-3)

예수님의 말씀(15-16): “짐승을 살리려고 안식일에 물을 주지 않느냐?”

이 여인은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여 시달림. 그녀를 안식일에 풀어주는 것이 안식을 주는 것  
다른 날에 고쳐도 됨, 하루 이틀 있다 해도 됨. 그런데 일부러 안식일을 택함

그 이유는 참된 자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16절의 ‘매인 것을 풀어 주는 것’이 안식이다. 기독교

1. 사람을 짐승보다 못하게 여긴 것 정죄, 다른 회중도 마찬가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사람을 살려야 한다.  
 교회 안에서 쓸데없는 전통과 형식이 사람을 묶으면 풀어 주어야 함  
 무법이 되라는 말이 아니다. 거룩함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다.
2.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딸, 여인의 영적인 상태, 구원받은 자, 마귀의 영향 하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  
 고후12:7의 사도 바울처럼. 사탄의 사자, 모든 병이 마귀의 것은 아니다. 다만 이 경우 등은 예외  
 구원받은 사람도 병에 걸릴 수 있다.
3. 마귀는 속박, 예수님은 해방  
 안식일의 참된 의미: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막2:27-28). 이 교회의 모든 일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그럼에도 구원받은 성도가 자유를 방종의 도구로 삼으면 권징이 이루어진다.
4. 두 가지 반응(17): 부끄러워하는 자들과 기뻐하는 자들  
 핵심: 본질과 비본질, 융통성의 문제(교회 건축 문제 등).

**영적인 적용: 구원과 성화**

1. 여인은 몸이 굶어 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다 굶어 있다.
2. 몸이 휘어서 땅만 본다. 죄로 인해 육적인 사람은 땅의 일에만 관심  
 사람과 짐승의 차이, 짐승은 땅만 본다. 사람을 하늘을 본다.
3. 속박에 묶여 있다. 마귀와 죄와 육신에게 묶여 있다.
4. 예수님을 만남으로 굶은 것이 퍼지고 속박에서 풀려난다(행26:17-18).
5.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6.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이 된다.
7. 문제: 몸이 퍼진 뒤 다시 땅만 보고 살면 될 것인가?(골3:1-2, 5-9)
8. 목사와 교회: 사람을 살리는 것은 맞지만(구원)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은 불가능(성화와 권징)
9. 그래서 본질적으로 옳은 것은 구하되 본질적으로 옳지 않은 것을 구하지 못함

**하나님의 왕국 설명**

무엇과 같은가?(18)

1. 겨자 씨(19), 큰 나무, 공중의 날짐승들
2. 누룩(21), 전체를 뜨게 함

많은 사람들의 해석: 교회의 확장, 세상 정복, 기독교 세상 혹은 국가, 특히 천주교 신학 체계  
 그러나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이런 해석이 맞지 않음

누룩: 출12:14-20부터 시작해서 나쁜 이미지, 눅12:1,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겨자 씨: 채소(마13:32)가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와서 거하면 비정상적인 일

종합해 볼 때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적은 무리의 성도들(씨)이 결국 커지기는  
 하나 마귀의 영향(누룩)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 마귀들이 깃드는 처소로 변모하는 것을 보여 줌.  
 아브라함에서 유대교 부패, 12명에서 온 세상 부패

교회와 성도들이 마귀의 영향을 받으면 아무리 교회가 크고 성도들이 많아도 헛된 것이 비정상이 될  
 수 있다.

사도 바울의 정의, 하나님의 왕국은 의와 화평과 기쁨(롬14:17-18), 의와 화평과 기쁨이 사라지면  
 교회를 그만두어야 한다. 의로움: 바르게 판단하는 것, 화평: 평안한 것, 기쁨: 좋은 것

고전5:6-8 설명, 퍼뜨리는 것

문제가 있으면 당사자, 목사, 집사 등에게 직접 말하고 풀어야 한다. 말을 퍼뜨리면 누룩과 같이 퍼진다.  
 그러면 공의가 집행되지 않는다. 듣는 사람들도 바르게 판단해야 한다. 목사와 리더들이 명백히 잘못하  
 지 않는 한 그들의 말에 순종하고 따라야 교회가 선다. 내가 아니라 교회